

제가 이상한가요?

최영수/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청소년성상담실

조 그만 목소리로 많이 부끄럽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하는 심정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 왔다. 27~8세쯤 되는 청년으로 보통의 젊은이었다.

청년: 저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여자와 한 번 성관계를 하고 난 뒤로 자위행위도 갖고 자꾸만 여자 생각이 나서 이래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담자: 많이 힘드시군요.

청년: 네, 자꾸만 여자 생각이 나서... 그래도 되는지...

상담자: 그렇겠지요. 글썄요. 그렇다고 성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도 없구. 어찌지요.

청년: 여자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는 자위행위를 하면 그런대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자위를 해도 시원치도 않고 여자생각만 자꾸 나니까, 자위도 더욱 자주 하게 되고...

상담자: 그래요,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도 많아지고... 갈수록 답답하지요?

청년: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위를 자주 해도 되는지, 보통 어떤지 궁금해요

상담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여요. 누구나 건강한 청년이라면 지금처럼 그러리라

고 믿어요. 요새는 성인이 되는 시기가 많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기술적으로 해야한다고 봐요. 내가 하고픈 대로만 한다면 지금처럼 본인이 제일 괴롭고 홍역을 치르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사실 포르노를 보면 본 순간부터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밥 먹을 때는 물론, 앉으나 서나 그 영상 때문에 죽을 맛인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청년: 정말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자: 많이 답답해 하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지요.

청년: 그제, 그...

상담자: 우선은 성충동이 일어날 때가 어떤 때 인지를 잘 살펴서 적어보면 어떨까요. 달력에 표시도 해보고 상황도 체크를 하면서 성충동이 일어날 여건을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하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성충동이 날 때마다 꼭 성관계를 해야만 하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한 대비책을 몇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하겠지요. 주위의 어른들도 아마 그렇

게 자신들과 싸워서 극복하셨으리라고 믿어요. 탄소를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탄소가 숲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노래 가사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상하지요?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난데없이 아버지가 나를 낳다니. 실제로 내가 태어나려면 아버님 뱃속에서 3달 전에 만들어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게 되거든요. 예전에 백일기도를 드리고야 아기를 얻는다는 말이 증명되는 셈이에요. 결국 아빠들이 3달 동안 정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숲 같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볼 수 있지요. 본인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되나요?

청 년: ...

상담자: 쉬운 일은 없다고 봐요. 연애해 보셨나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기가 쉬웠나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만 잘 지나가면 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 보세요. 24시간 일년 365일을 일본 일초도 안떨어져 있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마도 엄청난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는 싸움이 되겠지요. 자신을 소중히 한다고 했을 때 그 대가로 얼마나 대단한 정성과 땀을 드러야 하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청 년: 네에...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지만 이제부터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담자: 진지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서 참 반가워요. 처음 동정을 하고 10여 년이 지나

야 완전하게 성장을 한다고 봐도 지금은 충분히 건강하고 또 즐길 수도 있겠지요. 자위도 시간과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평안한 시간으로 즐기도록 하세요. 성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함을 말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하면 건강을 해치고 생활의 리듬도 깨지거든요. 웅달샘을 생각해 보세요. 일생동안 쓸 정액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고이는 양보다 더 많이 쓴다면 결국 웅달샘이 말라버리겠지요.

청 년: 아- 그렇군요.

상담자: 진실로 수궁해 주는 것이 느껴져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청 년: 저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상담자: 꼭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어서 참 기뻐요. 성도 행복처럼 습관이라고 보아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세수만 하지 말고 성기도 충분히 깨끗이 씻고 팬티도 매일 갈아 입을 보세요. 그리고 성충동이 일 때는 되도록 여자를 멀리하고 격렬한 운동을 열심히 2~3시간 한다면 유사한 혼쾌함을 느끼겠지요.

청 년: 꼭 명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내담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진지함이 느껴져 상담하는 마음도 뿌듯했다. 한편으로는 그만한 나이에, 직장 생활까지 하는 데에 비해 너무도 동물적인 성만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기에만 급급해 하는 것으로 여겨져 걱정이 되는 나머지,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사원 연수에 성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상담 사례였다. **027-02**